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이경진

김선아

강병직

최진영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한양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미술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교육학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영재)교육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평가준거 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준거 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교육평가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영재)교육 전문가, 영재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30명의 델파이 패널을 선정하여 총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척도 평균,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 CVR)와 합의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12개의 상황평가준거, 25개의 투입평가준거, 12개의 과정평가준거와 9개의 성과평가준거로 구성된 총 58개의 미술영재교육 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둘째,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2개의 평가준거가 삭제되었다. 최종 확정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는 12개의 상황평가준거, 25개의 투입평가준거, 10개의 과정평가준거와 9개의 성과평가준거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는 추후 국가 수준의 기관평가 체제를 구축하거나 기관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미술영재교육, 교육과정 평가, 델파이 조사

I. 서 론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영재교육 수혜율은 2002년 0.26%에서 2008년 0.72%, 2011년 1.5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2007년 1개교에 불과했던 영재학교는 2012년 현재 6개교로 증가하는 등 영재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 발전은 여전히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했으나 시대적 변화와 예술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인식의 증가를 바탕으로 예술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기

교신저자: 이경진(leekjin@ewhain.net)

*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2012) 지원에 의한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관으로서, 단위 학교 영재학급의 경우 2008년 31개 학급에서 2011년에는 105개 학급으로, 교육청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2008년 9개 기관에서 2011년 51개로 증가하였다(서예원, 이재분, 박지은, 2011).

이러한 예술영재교육기관의 양적 증가는 예술영재교육의 확산과 참여 기회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나 그와 더불어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평가는 수·과학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 영재교육에 근거하여 개발된 평가준거나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예술영재교육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도교육청 영재교육 담당 장학사나 관련 교사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예술영재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예술영재교육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제대로 된 예술영재교육 평가준거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1년에 이루어진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개발」 연구(이경진 외, 2011)의 후속 연구이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및 미술영재교육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개발된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미술영재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개발한 평가 모형(이경진, 김선아, 2012)을 기반으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개념적 논의보다는 평가준거 개발과 타당화 작업에 초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음악 및 전통공예예술, 무용 등의 분야에 대한 평가준거 개발의 예시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수준의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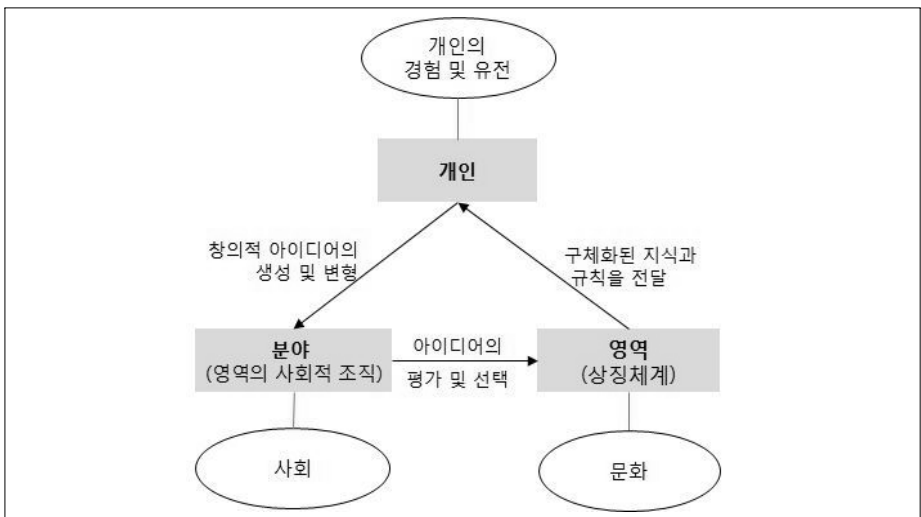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순히 투입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최종 산출물에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 즉 평가준거를 설정하는 것은 곧 프로그램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지향점과 방향 그리고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이자 검토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미술영역에서 최근 논의되는 영재의 개념과, 영재교육의 방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미술영재교육의 동향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미술영재교육의 동향

미술 영역 안에서 영재에 대한 인식은 비범한 천재의 삶을 살았던 미술가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포장되고 신비화된 점이 없지 않다. Freedman(1997)은 예술가를 극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자유의 상징물로 미화하였던 서구 모더니즘이 소수의 예술가를 숭배하는 한편, 다수의 예술가를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술 영재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집중하였던 선행 연구들은 “미술이라는 양식을 통해 남다른 재능을 나타내는 아이”를 미술 영재로 정의하고(김정희, 2005: 19), 주로 영재아의 선천적인 요소 혹은 개인적 능력, 동기, 사고과정을 밝히는 데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미술 분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 업적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 미술 영재의 후천적, 환경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 연구에 있어 Csikszentmihalyi(1996)의 체계 이론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계 속에서 창의적 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Csikszentmihalyi의 체계 모델에 따르면 창의성은 개인(individual), 영역(domain), 분야 혹은 장(field)의 세 요소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최인수, 1998, 재인용). [그림 1]은 최인수(1998)가 Csikszentmihalyi의 모델을 수정한 것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individual)’은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는 영역의 상징체계를 통달할 뿐만 아니라, 영역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는다. 이때 개인의 잠재성, 내적 동기, 호기심 등 인지적·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영역(domain)’은 “상징적 규칙이나 절차, 지식의 집합체”(최인수, 2000: 11)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잠재력에 부합하는 특정 영역에 접해 있어야 하며, 영역 고유의 지식 체계와 표현 형식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야’ 혹은 장(field)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누가 분야에 진입할 수 있으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산출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림 1] 창의성의 체계 모델(최인수, 1998: 136)

창의성의 체계 모델을 통하여 볼 때, 미술영재교육은 미술 영역의 상징체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창의적 개인이 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별과 평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분야의 수문장(gatekeeper)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와 같은 미술영재교육의 의미를 고려할 때 미술영재 교육과정은 단순히 미술의 내용과 형식을 습득하고 숙련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공인되고 있는 영역의 상징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한 미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접촉과 참여를 통하여 미술계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Clark과 Zimmerman(2008)은 미술영재교육에 있어 시각예술의 역할, 환경적·사회적 이슈, 미적 능력 및 창의성 발달과 같은 복잡한 현안을 다루는 미술 전문가의 모델을 제안한다. 즉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과제를 표본으로 삼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미술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에 미술의 의미와 결과물을 창작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술가, 미술 비평가, 미술사학자, 미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기술적 능력을 미숙함에서 예비→초보→중간→발전→숙달→정교함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미술전문가 모델에서 미술영재 교육과정에 관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미술영재교육을 성숙한 개인적 표현 양식을 가진 뛰어난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미술영재교육은 창의적인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은 고정된 미술의 전통적인 기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최근 변화하는 미술의 동향과 확장되는 의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요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의 특징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란 표적 학습 집단에 가장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거나 조직해 놓은 것이다. 즉 뚜렷한 교육목표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학습경험의 연속과정이자, 지식(knowledge)과 교수학습방법(Instructional technique)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육체계라고 할 수 있다(DeHaan & Havighurst, 1965: 80). 여기에서 영재 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아닌 교육대상자가 가진 특수성이다. 즉 미술영재 교육과정은 ‘미술영재라고 판별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일련의 교육내용 및 방법의 체계’인 것이다(김정희, 강병직, 2011). 그러므로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평가는 미술 영재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일련의 교육체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미술영재교육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평가준거를 수립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다면적 특성이다. Clark과 Zimmerman(2008)이 설명하고 있는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3가지 방

침, 즉 사회중심(society-centered), 교과중심(subject matter-centered), 아동중심(child-centered)의 관점은 동시대 미술영재교육 안에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중심 프로그램(society-centered program)’은 주된 목표를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둔다. 이때 미술 영재들은 학교나 지역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받는다. 반면 ‘교과중심 프로그램(subject matter-centered program)’에서는 체계화된 미술의 학문적 구조를 강조하고, 제작, 비평, 감상에 요구되는 능숙한 표현 능력과 역량을 미술 영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아동중심 프로그램(child-centered program)’에서는 학생들이 드러내는 관심과 요구가 곧 교육과정의 구조이자 내용이 된다. 즉 아동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자기표현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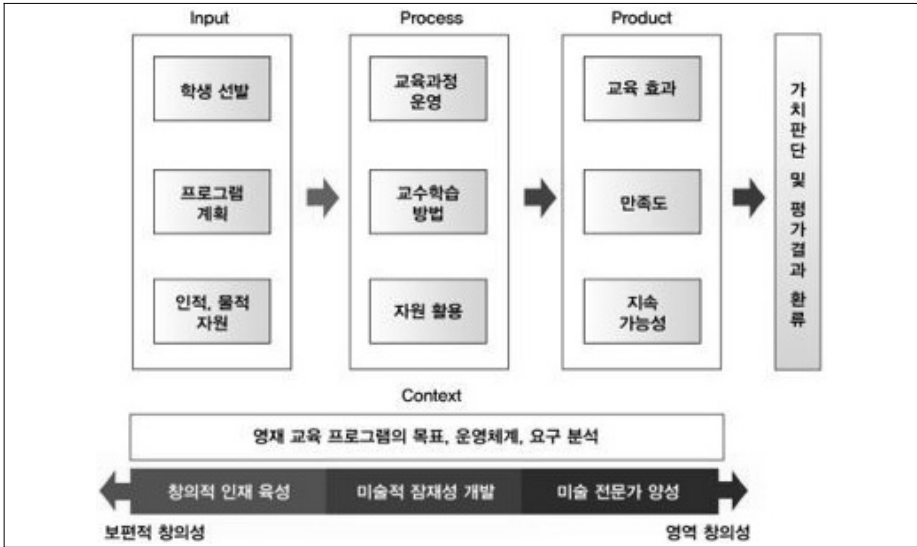
이처럼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각기 다른 주안점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지도 방법이 확연하게, 때로는 대립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평가가 단면적이고 일률적인 준거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미술영재 교육과정이 가진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에 있어 배타적으로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만 출발할 수 없으며, 맥락적이고 체제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가치와 해석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술영재 교육과정 또한 절충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평가 준거는 다면적이고 순환적인 평가 모형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개관

최근 미술영재교육은 단순히 미술 창작에 요구되는 높은 실기 능력을 가진 아동을 선발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의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영재성의 구인요소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미술영재 교육과정 또한 미술의 전통적인 지식체계와 기능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특성을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은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이경진 외, 2011; 이경진, 김선아, 2012).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여기에서 평가 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세부적인 개념적 배경을 상세히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평가 모형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술영재 교육과정은 선발된 미술영재의 잠재력과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와 미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영재의 학습요구를 반영한 차별화(differentiated) 교육이 이루어져 미술영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술영재교육의 산출물만 아니라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미술영재를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림 2]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위의 평가 목적에 따라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모형은 CIPP 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CIPP 평가 모형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치판단과 지속/폐지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11). 이는 세부 평가 항목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교육 기관의 역량과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을 의미한다(Stufflebeam, 2005). 따라서 CIPP 평가 모형에 따른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맥락을 제공하는 상황평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황평가에서는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이해,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학습자 요구 분석, 교육기관의 합리적 운영, 운영 조직 체계의 전문성 등을 평가한다.

투입평가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을 다양한 조건들의 적절성과 구체성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교육실천을 위한 전략적 측면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투입평가에서는 선발기준의 적절성과 선발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적절성과 교육평가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강사의 전문성, 교육지원 인력 등의 인적자원과 예산 및 교육시설 확보, 교육용 기자재 및 교재 확보,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한다.

과정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실행

천하기 위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이 설정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필요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변화를 파악하고, 미술 영재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필요시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술에 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인적 자원들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가용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활용되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성과 평가는 프로그램의 지속여부와 개선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학습자의 질적 변화를 판단하며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교육 기관의 비전과 역량, 평가 결과의 환류, 네트워크 구축, 예산 활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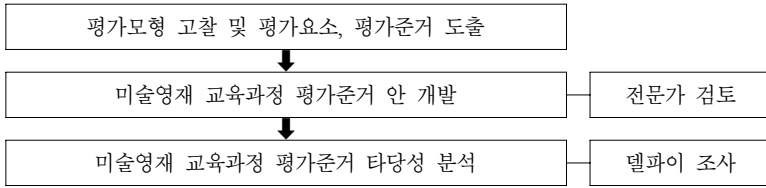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구성했다. 한 부류는 교육과정 및 영재교육 전공자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영재교육 전공자이다.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공동연구원 중 한 명은 교육과정 및 영재교육 전공자로 선정했고, 미술영재교육 분야의 전문가 2명을 공동연구원으로 선정했다. 미술영재교육 분야의 전문가 중 한 명은 본 연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개발」 연구의 미술 분야 평가 모형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이었다.

먼저 본 연구의 선행하여 2011년에 수행된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평가영역별로 분담하여 각 평가요소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제시하고, 이를 연구진 간에 서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교육기관 평가준거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였다.

연구진들이 개발한 평가요소 및 평가준거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준거 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학 전문가, 영재교육 행정가, 미술(영재)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평가준거 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평가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미술(영재)교육 전문가, 영재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델파이 패널을 선정하여 총 2차에 걸쳐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그림 3] 연구절차

2. 조사대상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요소 및 준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학 전문가 2인, 교육 기관 종사자 3인, 미술교육 전문가 5인, 총 10인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교육학 전문가로는 영재교육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평가 전문가 각 1인이 대상이 되었으며, 교육 기관 종사자는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혹은 운영에 경험이 있는 교육연구사 1인, 고등학교 교사 1인, 초등학교 교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미술교육학 전문가로는 교육대학 미술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인과 교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교수는 미술영재교육 분야의 연구자 1인, 미술교육과 관련한 창의성 연구자 1인, 대학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는 교수 1인이 참여하였다. 이외의 미술교육학 전문가 2인 또한 현장에서 미술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교사로서 미술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평가준거 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준거 안을 기반으로 텔파이 조사지를 개발하고 실시 방법을 결정한 후,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2차에 걸쳐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텔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 선정의 기준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1> 텔파이 조사 패널 선정 기준 및 역할

| 구분 | 인원 | 선정기준 | 역할 |
|---------------|----|------------------------------------|---|
| 교육평가 전문가 | 2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문가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대한 일반적 의견 제시 |
| 영재교육 전문가 | 3 | 영재교육 이론가 | 영재교육과정 및 영재교육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
| 미술(영재) 교육 전문가 | 15 | 미술교육 및 미술영재교육 전문가 | 미술이라는 교과 특수성을 반영한 영재교육과정 평가 의견 제시 |
| 영재교육 행정가 | 10 | 영재교육기관 운영/행정가, 미술교육 영재교육 기관 운영/행정가 | 영재교육 행정 및 미술영재교육기관 운영 관점에서 평가준거에 대한 의견 제시 |

전문가 검토 의견 조사와 텔파이 조사는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지를 전문가 패널에게 발송한 후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응답을 독려하였다. 조사 기간 및 응답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기간 및 응답자 수

| 조사단계 |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인원수 | | 응답률(%) |
|--------|-------------|------|-----|-----|--------|
| | | | 발송 | 응답 | |
| 전문가 검토 | 7.5 ~ 7.12 | | 10명 | 10명 | 100 |
| 1차 델파이 | 7.31 ~ 8.7 | 이메일 | 30명 | 30명 | 100 |
| 2차 델파이 | 8.20 ~ 8.27 | | 30명 | 30명 | 100 |

3.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준거 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검토에서는 CIPP 모형에 근거한 평가모형에 기반하여 상황평가(C), 투입평가(I), 과정평가(P), 성과평가(P)의 4개 하위 체계에 따라 평가영역과 각 평가영역 별로 평가준거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평가요소와 평가준거의 적합성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는 양적인 설문 뿐 아니라, 각 평가요소와 평가준거를 재진술하거나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추가될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는 양적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긍정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평가요소와 평가준거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작성한 질적 자료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평가요소와 평가준거 수정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발한 평가준거 안을 기반으로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지 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세부항목은 <표 5>부터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3> 조사지별 문항 구성

| 문항 구성 | 문항 수 | | | |
|-------|------------|------------|------------|----|
| | 전문가 의견 조사지 | 1차 델파이 조사지 | 2차 델파이 조사지 | |
| 평가영역 | 13 | 12 | 12 | |
| 평가요소 | 상황평가 | 6 | 5 | 5 |
| | 투입평가 | 13 | 12 | 12 |
| | 과정평가 | 7 | 5 | 5 |
| | 성과평가 | 10 | 5 | 5 |
| 평가준거 | 상황평가 | 20 | 11 | 12 |
| | 투입평가 | 52 | 25 | 25 |
| | 과정평가 | 19 | 12 | 12 |
| | 성과평가 | 25 | 9 | 9 |

델파이 조사는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델파이 절차가 반복되는 동안 전회의 통계적 집단 반응을 참고하여 다음 회에 자기 판단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종성, 2001). 따라서 1차 조사지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수정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준거의 중요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지에서는 1차 조사지에 대한 조사 결과인 평균과 중앙값(Md)를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척도 평균과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 CVR), 합의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은 지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에 대한 평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5점 척도 가운데 중앙인 3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성 평가의 평균값에 대한 기준은 4.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Schipper가 제시한 데이터 값에 의거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전문가 패널 수는 30명이므로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이 .33 이상인 항목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 합의도는 전문가 패널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1에 가까울수록 합의도가 높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합의도가 .75이상인 경우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이종성, 2001).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평균값=4.0 이상(5점 기준)’, ‘내용타당도(CVR)=.33 이상’, ‘합의도=.75 이상’을 평가준거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IV.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 개발

1.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 안 개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상황평가(C), 투입평가(I), 과정평가(P), 성과평가(P)의 체계에 따른 평가영역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다. 둘째, 4개의 각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요소의 타당성을 묻는 항목이다. 셋째, 평가요소에 따라 제시된 평가준거의 적합성을 묻는 항목이다.

<표 4> 전문가 의견 조사지 문항 구성의 일부분

| 하위체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
| 상황평가 | 미술영재교육의 목표 |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필요성 이해 |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육성 미술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현대미술 및 미술영재 인식 제고 |
| | |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 시각예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미술 잠재력 개발 미술 영역 선도 전문 미술가 육성 |
| | 운영 체계 | | |
| | 요구 분석 | | |
| 투입평가 |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 과정평가 | (이하 생략) | | |
| 성과평가 | | | |

각 항목은 5단계 리커트 척도에 따른 타당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각 평가요소와 평가준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평가준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는 각 항목을 재 진술 및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하거나,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일단 양적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 4.0이상, 표준편차 0.8미만, 긍정률 80%를 기준으로 3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준거를 ‘선정’, 2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준거를 ‘수정’, 그리고 1가지 미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준거를 ‘탈락’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에서는 양적인 부분 뿐 아니라 각 준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양적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탈락하지 않았다. 준거의 선정은 통계에 의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특성 및 목적, 그에 대한 연구진의 견해를 고려한 질적 분석의 종합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준거 가운데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기재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또는 탈락 여부를 재검토하고, 1가지의 기준만을 충족시키는 준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기재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평가영역의 체계에서 상황과 과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명료화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평가준거의 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준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삭제해야 할 평가준거들을 검토하고 유사하거나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평가준거들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였다. 특히 평가영역에서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상황평가를 ‘미술영재교육의 목표’와 ‘교육기관 운영 능력’의 2개 능력으로 축소하고 기존의 ‘요구 분석’의 내용을 목표와 관련된 항목에서 미술 영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요소로 추가함으로써 상황평가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악, 인식, 확보, 적절성 등 평가준거에 사용한 용어들을 일관되게 정련하였다. 그 결과, 총 57개의 평가준거를 개발했으며, 평가준거는 상황평가 11개, 투입평가 25개, 과정평가 12개, 성과평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항목은 델파이 조사지에 나타내었다.

2.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안)의 타당성 분석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분석 결과,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는 평균 3.97, CVR 0.40, 합의도 0.50로서 2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자문위원회의 활용’은 2가지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1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투입평가 부문에서의 평가준거에서 ‘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 항목은 평균 3.73, CVR 0.27, 합의도 0.75로서 2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탈락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 항목 모두가 3개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표 6> 참조).

과정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분석 결과, ‘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의 평균은 3.67, CVR은 0.27, 합의도는 0.75로 타당성 기준 중 2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삭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의 평균은 3.67, CVR은 0.33, 합의도는 0.75로서 2가지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1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성과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분석 결과, 결과물 평가와 관련되는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는 타당성 기준 중 2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삭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은 3개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모두 선택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그 외 기타 의견으로서는 개발된 평가 체계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과 함께 추가될 부분과 보완될 부분이 제시되었다. 가령, 참여자 B는 미술영재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열정을 평가하는 부분을, 참여자 F는 영재교육 강사진의 전문성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열정’에 대한 평가는 주관성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지닌다. 또한 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2.2.5.교사 전문성’ 항목에서 4개의 준거를 배치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가체계의 구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령 참여자 C는 평가요소와 평가준거가 중복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자 C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입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과 과정평가 부문의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성과평가 부문의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평가 부문에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를 추가하였다.

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 4.0 이상, CVR 0.33 이상, 합의도 0.75 이상이라는 타당성 판정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준거에서 삭제하였다.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분석 결과, 타당성 판정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 ‘자문위원회의 활용’은 2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

<표 5> 상황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 평가 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1차 | | | 2차 | | |
|---------------------------|-------------------------|---------------------------------|------|------|------|------|------|------|
| | | | 평균 | CVR | 합의도 | 평균 | CVR | 합의도 |
| 1.1.1. 미술영재 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 | 1.1.1.1.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 | 3.97 | 0.40 | 0.50 | 3.87 | 0.47 | 0.81 |
| | | 1.1.1.2.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인식 | 4.53 | 0.87 | 0.80 | 4.53 | 0.87 | 0.80 |
| 1.1. 미술영재 교육의 목표 | 1.1.2. 미술영재 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 1.1.2.1. 현대미술 동향과 미술영재 개념의 이해 | 4.23 | 0.60 | 0.75 | 4.27 | 0.67 | 0.75 |
| | | 1.1.2.2. 미술 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인식 | 4.70 | 0.93 | 0.85 | 4.63 | 0.93 | 0.80 |
| 1.1.3.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 | | 1.1.3.1. 학습자 요구 파악 | 4.40 | 0.80 | 0.78 | 4.50 | 0.93 | 0.80 |
| | | 1.1.3.2. 학습자 특성 파악 | 4.73 | 1.00 | 0.85 | 4.77 | 1.00 | 1.00 |
| | | 1.1.3.3.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파악 | 4.13 | 0.60 | 0.75 | 4.23 | 0.87 | 0.75 |

| 평가 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1차 | | | 2차 | | |
|------------------|------------------------|------------------------------|------|------|------|------|------|------|
| | | | 평균 | CVR | 합의도 | 평균 | CVR | 합의도 |
| 1.2.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 | 1.2.1. 교육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 1.2.1.1.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여부 | 4.10 | 0.53 | 0.75 | 4.10 | 0.53 | 0.75 |
| | | 1.2.1.2.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 | - | - | - | 4.23 | 0.67 | 0.75 |
| | 1.2.2. 운영 조직의 전문성 | 1.2.2.1. 운영조직의 체계성 | 4.23 | 0.73 | 0.75 | 4.23 | 0.73 | 0.75 |
| | | 1.2.2.2. 운영 인력의 전문성 | 4.60 | 0.93 | 0.80 | 4.60 | 0.93 | 0.80 |
| | | 1.2.2.3. 자문위원회의 활용 | 3.73 | 0.33 | 0.75 | 3.63 | 0.33 | 0.75 |

기는 했지만 1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표 5> 참조).

투입평가 부문에서의 평가준거에서 타당성 판정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다만 ‘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 항목은 평균 3.70, CVR 0.33, 합의도 0.75로서 1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표 6> 참조).

<표 6> 투입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 평가 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1차 | | | 2차 | | |
|-------------------|-----------------------|----------------------------------|------|------|------|------|------|------|
| | | | 평균 | CVR | 합의도 | 평균 | CVR | 합의도 |
| 2.1. 선발 | 2.1.1. 선발 기준의 적절성 | 2.1.1.1. 추천 및 선정 요소의 다양성 | 4.33 | 0.73 | 0.78 | 4.27 | 0.87 | 0.75 |
| | | 2.1.1.2. 선발기준의 적절성 | 4.73 | 0.87 | 1.00 | 4.83 | 1.00 | 1.00 |
| | 2.1.2. 선발 방법의 적절성 | 2.1.2.1. 선정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 4.23 | 0.60 | 0.75 | 4.17 | 0.67 | 0.75 |
| | | 2.1.2.2. 다면평가단계 절차 여부 | 4.50 | 0.73 | 0.80 | 4.50 | 0.80 | 0.80 |
| 2.2. 교육 프로그램 계획 | 2.2.1. 교육 목표의 적절성 | 2.2.1.1. 영재교육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4.53 | 0.87 | 0.80 | 4.70 | 1.00 | 0.80 |
| | | 2.2.1.2. 교육내용 구성의 연계성 | 4.47 | 0.80 | 0.80 | 4.63 | 0.87 | 0.80 |
| | | 2.2.1.3. 영재교육 목표와의 연계성 | 4.57 | 0.80 | 0.80 | 4.83 | 1.00 | 1.00 |
| | | 2.2.1.4. 창의성 및 실생활 문제해결 내용 선정 여부 | 4.57 | 0.93 | 0.80 | 4.57 | 0.93 | 0.80 |
| | 2.2.2. 교육 내용의 적절성 | 2.2.2.1.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 여부 | 4.63 | 0.87 | 0.80 | 4.73 | 1.00 | 0.85 |
| | | 2.2.2.2. 교육방법의 다양성 | 4.47 | 0.93 | 0.78 | 4.43 | 0.80 | 0.8 |
| | | 2.2.2.3. 교육방법의 적절성 | 4.63 | 0.93 | 0.80 | 4.70 | 0.93 | 0.85 |
| | 2.2.3. 교육 방법의 적절성 | 2.2.2.3. 개별화 교육 여부 | 4.57 | 0.80 | 0.80 | 4.67 | 0.93 | 0.85 |
| | | 2.2.2.4. 평가방법의 다양성 | 4.47 | 0.87 | 0.80 | 4.40 | 0.93 | 0.75 |
| | | 2.2.2.5. 평가준거의 적절성 | 4.50 | 0.80 | 0.80 | 4.43 | 0.93 | 0.75 |
| 2.2.4. 교육 평가의 타당성 | 2.2.2.6. 평가결과와 환류 | 4.30 | 0.67 | 0.75 | 4.57 | 0.93 | 0.80 | |
| | 2.3.1.1. 전문가 확보 계획 여부 | 4.40 | 0.93 | 0.75 | 4.33 | 0.87 | 0.75 | |
| | 2.3.1.2. 교강사의 전문성 | 4.63 | 0.93 | 0.80 | 4.67 | 0.93 | 0.80 | |
| 2.3. 인적 자원 | 2.3.1. 교강사의 전문성 | 2.3.1.3.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4.43 | 0.80 | 0.80 | 4.63 | 0.87 | 0.80 |
| | | 2.3.2.1. 교육 지원 인력 확보 | 4.23 | 0.67 | 0.75 | 4.30 | 0.87 | 0.75 |
| | 2.3.2. 지원 인력 확보 | 2.3.2.2. 행정 지원 인력 확보 | 4.10 | 0.73 | 0.81 | 4.10 | 0.73 | 1.00 |

| 평가 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1차 | | | 2차 | | |
|-----------------|----------------------|----------------------------|------|------|------|------|------|------|
| | | | 평균 | CVR | 합의도 | 평균 | CVR | 합의도 |
| 2.4. 물적 자원 및 재정 | 2.4.1. 교육 시설 확보 | 2.4.1.1. 교육 공간 및 기자재 확보 | 4.20 | 0.67 | 0.75 | 4.30 | 0.73 | 0.75 |
| | 2.4.2. 교구 및 자료 확보 | 2.4.2.1. 교구 및 자료 제공 | 4.30 | 0.80 | 0.75 | 4.33 | 0.73 | 0.75 |
| | 2.4.3. 지역문화 예술 자원 확보 | 2.4.3.1. 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 | 3.73 | 0.27 | 0.75 | 3.70 | 0.33 | 0.75 |
| | 2.4.4. 재정 확보 | 2.4.4.1. 예산의 충분성 | 4.50 | 0.87 | 0.80 | 4.40 | 0.93 | 0.75 |
| | | 2.4.4.2. 예산 편성의 적절성 | 4.20 | 0.73 | 0.75 | 4.20 | 0.80 | 0.75 |

과정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분석 결과, ‘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의 평균은 3.70, CVR은 0.27, 합의도는 0.75이며,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의 평균은 3.73, CVR은 0.27, 합의도는 0.75로서 이들 평가준거는 타당성 기준 중 2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삭제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과정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 평가 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1차 | | | 2차 | | |
|---------------|---------------------|------------------------------------|------|------|------|------|------|------|
| | | | 평균 | CVR | 합의도 | 평균 | CVR | 합의도 |
| 3.1. 교육 과정 운영 | 3.1.1.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 3.1.1.1.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 | 4.57 | 0.80 | 0.80 | 4.70 | 1.00 | 0.80 |
| | | 3.1.1.2. 수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4.43 | 0.87 | 0.78 | 4.60 | 1.00 | 0.80 |
| | | 3.1.1.3.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4.43 | 1.00 | 0.75 | 4.50 | 0.93 | 0.80 |
| 3.2. 교수 학습 방법 | 3.2.1.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 3.2.1.1.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 4.50 | 0.80 | 0.80 | 4.53 | 1.00 | 0.80 |
| | | 3.2.1.2. 학습자 특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 4.70 | 0.93 | 0.85 | 4.80 | 1.00 | 1.00 |
| | 3.2.2.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성 | 3.2.2.1.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 4.47 | 0.87 | 0.80 | 4.77 | 1.00 | 1.00 |
| | | 3.2.2.2. 학습양식별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 활용 | 4.37 | 0.87 | 0.75 | 4.57 | 1.00 | 0.80 |
| 3.3. 자원 활용 | 3.3.1. 인적자원 활용의 적절성 | 3.3.1.1.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 | 4.33 | 0.80 | 0.75 | 4.43 | 0.93 | 0.75 |
| | | 3.3.1.2. 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 | 3.67 | 0.27 | 0.75 | 3.70 | 0.27 | 0.75 |
| | 3.3.2. 물적자원 활용의 적절성 | 3.3.2.1.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 4.17 | 0.73 | 0.75 | 4.30 | 0.87 | 0.75 |
| | | 3.3.2.2.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 | 3.67 | 0.33 | 0.75 | 3.73 | 0.27 | 0.75 |
| | | 3.3.2.3. 예산 집행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4.17 | 0.67 | 0.75 | 4.20 | 0.80 | 0.75 |

성과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분석 결과 전 항목이 3개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

어 모두 선택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성과평가 부문의 평가준거에 대한 델파이 분석 결과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1차 | | | 2차 | | |
|-------------|----------------------|--------------------------|------|------|------|------|------|------|
| | | | 평균 | CVR | 합의도 | 평균 | CVR | 합의도 |
| 4.1. 교육 효과 | 4.1.1. 결과물 평가 | 4.1.1.1.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 | 3.93 | 0.47 | 0.56 | 4.00 | 0.53 | 0.81 |
| | | 4.1.1.2.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 | 3.93 | 0.40 | 0.50 | 4.00 | 0.53 | 0.81 |
| | 4.1.2. 교육의 과정에 대한 평가 | 4.1.2.1.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 4.47 | 0.93 | 0.78 | 4.53 | 1.00 | 0.8 |
| | | 4.1.2.2. 학습자 능력향상 여부 | 4.70 | 0.93 | 0.85 | 4.63 | 1.00 | 0.8 |
| 4.2. 만족도 | 4.2.1. 학습자 만족도 | 4.2.1.1. 학습자 만족도 | 4.43 | 0.80 | 0.80 | 4.60 | 0.87 | 0.8 |
| 4.3. 지속 가능성 | 4.3.1. 평가결과 환류 | 4.3.1.1. 개선방안 수립 | 4.27 | 0.73 | 0.75 | 4.30 | 0.87 | 0.75 |
| | | 4.3.1.2.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 4.20 | 0.60 | 0.75 | 4.33 | 0.87 | 0.75 |
| | | 4.3.1.3.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 4.13 | 0.53 | 0.75 | 4.30 | 0.80 | 0.75 |
| | 4.3.2. 예산 확보 계획 | 4.3.2.1.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 4.13 | 0.73 | 0.75 | 4.33 | 0.80 | 0.75 |

3. 수정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

이상과 같은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요소와 평가준거를 수정하였다. 먼저 평가요소 중 ‘1.1.1.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2.4.3.지역문화예술 자원 확보’, ‘4.1.1. 결과물 평가’는 삭제 대상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들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준거들이 삭제보다는 적합 혹은 수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1.1.1.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2.4.3.지역문화예술 자원 확보’는 추후 현장 적용을 통해 재검토할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4.1.1.결과물 평가’의 경우 하위의 평가준거들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평가요소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평가준거 측면에서는, 상향평가의 평가준거 중 ‘1.1.1.1.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와 ‘1.2.2.3.자문위원회의 활용’의 경우 타당성 기준 중 2개만 충족시켰으나, 당장 삭제하기보다는 추후 현장 적용을 통해 재검토할 항목으로 남겨두었다.

투입평가의 평가준거 중 ‘2.4.3.1.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은 수정 혹은 재검토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과정평가의 평가준거 중 ‘3.3.1.2.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와 ‘3.3.2.2.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은 삭제 항목으로 나타나 이들 준거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전문가 의견 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된 평가준거는 <표 9>와 같다.

<표 9>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된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
|----------|-------------------|--------------------------|---------------------------------|
| | | 1차 | 2차 |
| 1. 상황 평가 | 1.1. 미술 영재 교육의 목표 | 1.1.1.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 1.1.1.1. 영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 |
| | | 1.1.2.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 1.1.2.1. 현대미술 동향과 미술영재 개념의 이해 |
| | | | 1.1.2.2. 미술 잠재력 개발의 필요성 인식 |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
|-----------------|-------------------|--|---|
| 2. 투입 평가 | 1.2. 교육 기관의 운영 능력 | 1.1.3.1. 학습자 요구 파악 | |
| | | 1.1.3.2. 학습자 특성 파악 | |
| | | 1.1.3.3.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파악 | |
| | 2.1. 선발 | 1.2.1. 교육기관의비전과 발전 전략 | 1.2.1.1.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여부 1.2.1.2. 기관의 비전과 발전 전략 공유 |
| | | 1.2.2. 운영 조직의 전문성 | 1.2.2.1. 운영조직의 체계성 1.2.2.2. 운영 인력의 전문성 1.2.2.3. 자문위원회의 활용 |
| | | 2.1.1. 선발 기준의 적절성 | 2.1.1.1. 추천 및 선정 요소의 다양성 2.1.1.2. 선발기준의 적절성 |
| | 2.2. 교육 프로그램 계획 | 2.1.2. 선발 방법의 적절성 | 2.1.2.1. 선정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2.1.2.2. 다면평가다단계 절차 여부 |
| | | 2.2.1. 교육목표의 적절성 | 2.2.1.1. 영재교육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2.2.1.2. 교육내용 구성의 연계성 2.2.1.3. 영재교육 목표와의 연계성 |
| | | 2.2.2. 교육내용의 적절성 | 2.2.2.1. 창의성 및 실생활 문제해결 내용 선정 여부 2.2.2.2.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 여부 |
| | | 2.2.3. 교육방법의 적절성 | 2.2.3.1. 교육방법의 다양성 2.2.3.2. 교육방법의 적절성 2.2.3.3. 개별화 교육 여부 |
| | | 2.2.4. 교육평가의 타당성 | 2.2.4.1. 평가방법의 다양성 2.2.4.2. 평가준거의 적절성 2.2.4.3. 평가결과와 환류 |
| | | 2.3. 인적 자원 | 2.3.1. 교강사의 전문성 |
| 2.3.2. 지원 인력 확보 | | | 2.3.2.1. 교육 지원 인력 확보 2.3.2.2. 행정 지원 인력 확보 |
| 2.4.1. 교육시설 확보 | | | 2.4.1.1. 교육 공간 및 기자재 확보 |
| 2.4. 물적 자원 및 재정 | | 2.4.2. 교구 및 자료 확보 | 2.4.2.1. 교구 및 자료 제공 |
| | | 2.4.3. 지역문화예술 자원 확보 | 2.4.3.1. 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 |
| | 2.4.4. 재정 확보 | 2.4.4.1. 예산의 충분성 | |
| | | 2.4.4.2. 예산 편성의 적절성 | |
| 3. 과정 평가 | 3.1. 교육 과정 운영 | 3.1.1.1.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 3.1.1.2. 수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3.1.1.3.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
| | | 3.2. 교수 학습 방법 | 3.2.1.1.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3.2.1.2. 학습자 특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
| | | | 3.2.2.1.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3.2.2.2. 학습양식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
| | 3.3. 자원 활용 | 3.3.1. 인적자원 활용의 적절성 | 3.3.1.1. 교강사 전문성 신장 노력 |
| | | 3.3.2. 물적자원 활용의 적절성 | 3.3.2.1.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 3.3.2.2. 예산 집행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
|-------------|-----------------|--------------------------|----------------------|
| 4. 성과 평가 | 4.1. 교육효과 | 4.1.1.1.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 | |
| | | 4.1.1.2.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 | |
| | 4.2. 만족도 | 4.1.2.1.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 |
| | | 4.1.2.2. 학습자 능력향상 여부 | |
| | 4.3. 지속 가능성 | 4.2.1. 학습자 만족도 | 4.2.1.1. 학습자 만족도 |
| | | 4.3.1. 평가결과 환류 | 4.3.1.1. 개선방안 수립 |
| | | | 4.3.1.2.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
| | | | 4.3.1.3.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
| | 4.3.2. 예산 확보 계획 | 4.3.2.1.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 |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술영재 교육과정 중 미술 분야의 영재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에 개발한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중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이경진, 김선아, 2012)을 기반으로 평가준거 초안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준거 안을 개발하고, 개발한 평가준거가 미술영재교육 기관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준거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델파이 조사에 의해,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각 부문에 걸쳐 ‘미술영재교육의 목표’,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 등 총 12개 항목의 평가영역과, 각 평가영역별로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미술영재의 특성 파악’ 등 총 27개 항목의 평가요소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평가요소별로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인식’ 등 총 58개의 평가준거 중 ‘학부모 소통 및 참여 여부’,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의 적절성’은 삭제대상이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준거들은 실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준거의 수를 더 줄여야 한다면, 델파이 조사의 기준 통계치를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박혜림, 2007). 본 연구에서는 평균 4.0 이상, CVR 0.33 이상, 합의도 0.7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합의도 0.75 이상은 일반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이 기준을 0.8 이상까지 높인다면 평가준거의 수를 다음 <표 10>과 같이 31개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여러 측면들을 평가하여 미술영재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표 10>에 제시된 높은 기준을 통과한 평가준거들은 ‘공통 평가준거’로, 그 외의 평가준거들은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는 ‘선택 평가준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준거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준거는 교육대상, 교육목표, 또는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

<표 10> 합의도 0.8 이상인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준거 |
|----------|--------------------------|--|
| 1. 상황 평가 | 1.1.1. 미술영재교육의 사회적 요구 이해 | 1.1.1.1.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필요성 인식 |
| | 1.1. 미술 영재교육의 목표 | 1.1.2. 미술영재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1.1.3.1. 학습자 요구 파악 1.1.3.2. 학습자 특성 파악 |
| | 1.2. 교육 기관의 운영 능력 | 1.2.1. 운영 조직의 전문성 1.2.2.1. 운영 인력의 전문성 |
| 2. 투입 평가 | 2.1. 선발 | 2.1.1. 선발 기준의 적절성 2.1.1.1. 선발기준의 적절성 2.1.2. 선발 방법의 적절성 2.1.2.1. 다면평가단단계 절차 여부 2.2.1. 교육목표의 적절성 2.2.1.1. 영재교육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2.2.2.1. 교육내용 구성의 연계성 2.2.2.2. 영재교육 목표와의 연계성 2.2.3. 창의성 및 실생활 문제해결 내용 선정 여부 2.2.4.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 여부 2.2.3.1. 교육방법의 다양성 2.2.3.2. 교육방법의 적절성 2.2.3.3. 개별화 교육 여부 2.2.4. 교육평가의 타당성 2.2.4.1. 평가결과의 환류 |
| | 2.2. 교육 프로 그램 계획 | 2.2.2. 교육내용의 적절성 2.2.2.1. 교강사의 전문성 2.2.3. 교육방법의 적절성 2.2.3.1.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 2.2.4. 지원 인력 확보 2.2.4.1. 행정 지원 인력 확보 |
| | 2.3. 인적 자원 | 2.3.1. 교강사의 전문성 2.3.1.1. 교강사의 전문성 2.3.1.2. 교강사의 질 관리 방안 수립 여부 2.3.2. 지원 인력 확보 2.3.2.1. 행정 지원 인력 확보 |
| | 3.1. 교육 과정 운영 | 3.1.1.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3.1.1.1.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별화 3.1.1.2. 수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3.1.1.3.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 3. 과정 평가 | 3.2. 교수 학습 방법 | 3.2.1.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3.2.1.1.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3.2.1.2. 학습자 특성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3.2.2.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성 3.2.2.1.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3.2.2.2. 학습양식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
| | 4.1. 교육 효과 | 4.1.1. 결과물 평가 4.1.1.1. 미술작품 등 산출물 평가 4.1.1.2. 결과물 전시 및 발표 실시 4.1.2. 교육의 과정에 대한 평가 4.1.2.1.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4.1.2.2. 학습자 능력향상 여부 |
| 4. 성과 평가 | 4.2. 만족도 | 4.2.1. 학습자 만족도 4.2.1.1. 학습자 만족도 |

준거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및 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발된 평가준거가 영재교육기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재교육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경우 미술영재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평가준거도 상당히 포괄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 평가준거는 ‘효율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수립’,

‘영재교육 교수·학습 지도 자료의 개발 및 활용’, ‘영재교육 홍보 활동’,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체 워크숍 실시’, ‘영재교육 담당교사와 강사의 직무연수 참여비율’, ‘영재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시설, 자료의 확보 및 활용’, ‘2011년 서울시교육청 산출물대회 실적’, ‘2011년 자체 분야별 산출물 발표회, 전시회 실시’, ‘학생 평가 실시’, ‘차기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서면평가보고서와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 우수(특색) 사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준거들을 활용하여 미술영재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구체적인 평가준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지침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준거들은 미술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술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컨설팅 전담기구나 매뉴얼 제작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예원 외, 2011).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준거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준거가 미술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평가 및 컨설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준거 중 교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강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현장에서 혼란 없이 평가기준에 맞추어 미술영재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준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와 평가준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가 판단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육과정 평가가 교수·학습이나 수업계획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성과를 산출하는 과정까지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모형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가목적이 무엇인지, 각 평가준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행정가와 담당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술영재교육과정 평가준거를 실제 적용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델파이 조사에서 3개의 평가준거 타당성 판정 기준 중 1개 준거를 만족하지 못했던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파악 여부’, ‘자문위원회의 활용’과 ‘지역문화예술자원 협력 관계 구축’의 평가준거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평가준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를 통해 행정가와 담당 교사들이 평가준거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가와 담당교사들이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서상으로 평가준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 뿐 아니라 교사연수를 통해 평가준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희 (2005). **미술영재 이야기**. 서울: 학지사.
- 김정희, 강병직 (2011). **미술영재교육학**. 서울: 학지사.
- 박혜림 (2007).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평가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109-132.
- 서예원, 이재분, 박지은 (2011).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진, 김경자, 김성혜, 권도희, 오레지나, 김선아 (2011). **예술영재 교육과정 평가 모형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경진, 김선아 (2012). 미술영재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초. **영재교육연구**, 22(3), 639-662.
- 이용애 (2002). 시각예술 영재성 개념 모델의 탐색. **초등교육학연구**, 9(1), 21-36.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인수 (1998). 창의적 성취와 관련된 제 요인들: 창의적 연구의 최근 모델인 체계모델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2), 133-166.
- 최인수 (2000).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모델, **생활과학**, 3(1), 441-464.
- Clark, G., & Zimmerman, E. (2008). **미술영재교육: 이론과 실제**. [홍소영 역]. 서울: 미진사. (원본출간년도: 2004).
- Csikszentmihalyi, M. (2003). **창의성의 즐거움** [노혜숙 역], 서울: 북로드. (원본출간년도: 1996).
- Dehaan, R. F., & Havighurst, R. J. (1965). *Educating Gifted Childr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isner, E. W. (1998).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서울: 예경. (원본출간년도: 1972).
- Freedman, K. (1997). Curriculum inside and outside school: Representation of fine art in popular culture.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16(2), 136-145.
- Fitzpatrick, J. L., Sanders, J. R., & Worthen, B. R. (2011).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4th ed.). MA: Allyn & Bacon.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al Psychology*, 28(4), 563-575.
- Stufflebeam, D. L. (2005). CIPP model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In S. Mathison (Ed.), *Encyclopedia of evaluation*. CA: Sage.
- Winner, E. (1997). Giftedness vs. creativity in the visual arts. *Poetics*, 24(6), 349-377.

= Abstract =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Gifted Curriculum in Visual Arts

Kyungjin Le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Gifted in Arts

Sunah Kim

Hanyang University

Byoungjik Kang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young Choi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gifted curriculum in visual arts. For this purpose, a draft of evaluation criteria for gifted curriculum in arts were first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opinions of experts in educational assessment, gifted education, visual art education. Then, the Delphi method was employed to validate the evaluation criteria. Delphi survey was carried out twice with 30 panelists consisting of experts in educational assessment, experts in gifted education, experts in arts(gifted) education and administrators in gifted education. Delphi survey was analyzed using the mean,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degree of consensus.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58 evaluation criteria for gifted curriculum in art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opinions. The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12 context evaluation criteria, 25 input evaluation criteria, 12 process evaluation criteria, and 9 product evaluation criteria. Second,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Delphi survey, 2 evaluation criteria were not validated and finally were removed. The final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12 context evaluation criteria, 25 input evaluation criteria, 10 process evaluation criteria, and 9 product evaluation criteria. The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by this study can be used as a standar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assessment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and evaluate institutions and programs.

Key Words: Gifted curriculum in visual art, Program evaluation, Delphi method

| | |
|----------|--------------|
| 1차 원고접수: | 2013년 2월 28일 |
| 수정원고접수: | 2013년 4월 17일 |
| 최종게재결정: | 2013년 4월 17일 |